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 역내 금융안정 및 금융협력 주요 이슈 논의

1. 회의 개요

3.29일(수)~30일(목)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개최됐다.

* 한중일 회의 의장국 : 한국 / 아세안+3 회의 공동의장국 : 일본, 인도네시아

○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 등 총 12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권고, 역내 금융협력 운영지원 등 수행, '11년 싱가포르에서 출범후 '16년 국제기구로 전환

* 아세안 9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참석자들은 대내외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올해 5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아시안+3 금융협력 의제 등을 점검하였다.

○ 우리나라는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주요 의제들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2. 주요 논의 결과

먼저 경제동향과 관련해,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는 중국 봉쇄 해제에 따른 중국 및 주요국 경기 회복, 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 등 영향으로 금년 아세안+3 지역 전체의 성장률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 미국의 통화 긴축 지속, 중국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지정학적 긴장 심화 및 기후 변화 등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최근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가 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은 거시경제 진단에 공감하면서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서는 현재 논의 중인 역내 금융안전망(CMIM)의 실효성 강화 노력과 더불어 역내 통화의 활용을 제고하는 데에 회원국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역내 금융안전망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CMIM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재원 구조, 대출 프로그램, 대출 금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1년 하반기 핀테크 등 4개 작업반*으로 시작한 역내 금융협력 관련 미래 과제의 경우 작업반별 활동 내역과 향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였다.

* 4개 작업반(①인프라금융, ②구조적이슈, ③재난금융, ④핀테크(한국 주도)) + 금융디지털화

- 특히, 우리는 핀테크 작업반 주도국으로, 금년 4월중 오픈뱅킹 기술지원 사업을 개시하고 연내 역내 핀테크 규제현황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여 공통규범(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그간 역내 채권시장의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 가능금융, 디지털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 신규 중기 로드맵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으며,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들은 역내거시경제조사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4년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예산에 대해 승인하였다.

3. 향후 계획

금번 차관회의에서의 논의 사항은 5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제 금융국 금융협력과	책임자	과 장	범진완 (044-215-4830)
		담당자	사무관	이태운 (044-215-4833)
			사무관	박재은 (044-215-4832)
			사무관	양현정 (044-215-4834)
			사무관	김하린 (044-215-4836)